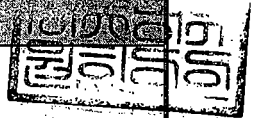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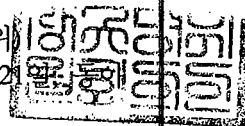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계응규	일본명	
	한자	桂膺奎	이명	
출생연월일	1869년 2월 2일		사망연월일	1920년 9월 1일
	平安北道 宣川郡 深川面 古軍營里 第4統 2戶(1908년 주소)			
주요경력	<b>1904년 이전</b>			
	1869.2.2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59쪽)		
	1902.2.3~1902.4.15	평안북도관찰부 주사(판임관6등) (관보, 1902년 2월 5일;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59쪽)		
	1902.4.20~1904.2.10	평안북도 선천군 소학교 교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59쪽)		
	<b>1904년 ~ 1945년</b>			
	1907.3.10~1907.6.20	평안북도 용천군 사립동명중학교 교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59쪽)		
	1907.6.21	의주지방위원 (같은 자료)		
	1909.4~1910.2	평안북도 선천군 농림학교장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09.12 현재	선천지방위원 (대한제년사[번역편] 권9, 58쪽)		
	1909.12.27	伊藤博文 사망에 대한 '각도대표 지방위원추도회' 거행 (황성신문, 1909년 12월 29일)		
	1910.3.4	평안북도 태천군수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10.8.29	태천군수(주임관 대우) (같은 자료)		
1910.9.30	폐관 (같은 자료)			
1910.10.1	평안북도 태천군수(고등관8등)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10월 20일)			



1910.12.20	태천군수(정8위)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2월 26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7일[부록])
1912.12.2	평안북도 위원군수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0일)
1914.3.1	평안북도 후창군수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3월 5일)
1914.12.22	후창군수(고등관7등)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2월 28일)
1915.3.20	후창군수(중7위)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3월 27일)
1915.11.10	일본정부로부터 대례기념장 받음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17.10.20	평안북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0월 23일)
1918.12.26	후창군수(고등관6등, 정7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월 10일;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20.9.1	서로군정서의 독립단원에게 피살됨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 받음(중6위)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9월 15일, 9월 21일, 9월 28일, 9월 30일,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3일, 12월 30일) 일보, 1920년 9월 3일)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본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행위

▶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7일(부록); 『朝鮮總督府郡守桂膺奎敍勳ノ件』,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12년 8월 1일 조선총독부 태천군수 계응규는 <명치 45년 칙령 제56호>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朝鮮總督府郡守桂膺奎敍勳ノ件』,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15년 11월 10일 일본정부로부터 일왕 다이쇼[大正]의 즉위식 관련 대례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9월 21일.

1920년 9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음.

## 2)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 정교 저, 조광 편, 『대한계년사』 권9, 소명출판, 2004, 57~59쪽.

“당시 일진회 회원이며 대구군 지방위원이던 윤대섭 및 그와 같은 패거리 김영두, 신녕 지방위원 황응두 등은 송병준과 이용구에게 몰래 부탁을 받고, 각 도와 각 군에 급한 일을 알리는 편지를 띄웠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흥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태사를 암살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교분에 크게 손상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마땅히 일본으로 건너가, 사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일본 천황폐하께 올려 두 나라 사이의 친목과 우의를 갑절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각 군에서는 민중의 대표를 각각 한 사람씩 뽑아, 빨리 서울로 보내십시오.’ 이에 13도 70여 고을의 지방위원이 [1909년 - 작성자] 11월 30일, 서울 사동의 임시회의소에 모였다. 13명을 뽑아 ‘사죄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일본에 건너가겠다는 뜻으로 내부 및 경시청에 청원했다. (중략) 12월 16일 평안북도 선천지방위원 계응규 등 세 명이 황응두에게 가서 만나 그를 꾸짖고, 그들이 인민을 대표한 사죄단이라는 위임장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윤대섭과 황응두 등은 다만 경상도 인민을 대표한다는 위임장만을 가지고, 12월 18일 일본으로 갔다. 12월 21일 계응규 등 13명은, 사죄의 일로 일진회 회원에게 위임한 바 없다는 내용을 『황성신문』에 실었다. 12월 27일 계응규 등 7명은 각 도의 인민을 대표하여 흥인문 밖 永道寺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거행했다.”

▶ 『황성신문』, 1909년 12월 29일 2면, 「추도거행」.

“지방위원 계응규·조달원·김용규·감익용·황종주·장재한·홍하규 諸氏が 각도 대표로 伊藤太師追悼會를 재작일[1909년 12월 27일 - 작성자] 하오 4시에 동대문 밖 永道寺에서 거행하였다더라”

▶ 「朝鮮總督府郡守桂膺奎敍勳ノ件」, 『敍勳』 卷3, 內國人3, 1920.

“조선총독부 군수 종6위 계응규는 1910년 3월 평안북도 태천 군수에 임명되어 동년 10월 현관에 임명된 이래 태천, 위원, 후창의 수 개 군에서 근무하였으며, 언제나 총독시정의 취지를 몸소 익혀 군을 다스리는 데 힘쓰고 부지런히 노력함이 현저한 자이다. 본월[1920년 9월 - 작성자] 1일 배일불령선인에 의해서 총살되어 그 직분으로 죽은 자이므로, 이에 특별히 훈6등의 관위를 주고 서보장을 수여하고자 하니 이 건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건은 본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매일신보』, 1920년 12월 24일 3면, 「후창군수 총살 범인은 사형」.

“이미 여러 번 보도한 바와 같이 평북 후창군수를 참살한 범인 이창덕 이십팔세[38세]의 착오로 보임 - 작성자]된 자는 신의주 지방법원 지청에서 사형의 판결을 받은 바 (중략) 피고 이창덕은 1920년 3월 하순 경에 지나 봉천성 통화현 칠도구에 독립운동기관되는 남만군정서 암살단이라 하는 것을 조직하고 이탁이란 자를 단장으로 삼고 신광제를 암살대장으로 하고 이항봉을 부관으로 한 암살단에 참가하여 동지 이종식과 함께 부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조선독립운동을 방해하는 평안북도 후창군수 계응규와 후창헌병분대 헌병보조원 한승무를 암살하기 위하여 구식 칠연발 권총을 가지고 이종식은 동년 8월 14일 후창읍내에 침입하여 표면으로는 나무꾼들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서 체재하는 모양같이 꾸미고 순사와 군서기 같은 것을 친밀히 교제하여 교묘히 경관의 경계를 피하고 (후략)”

#### 【참고사항】 이창덕의 독립유공자 공훈기록

- 출처: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 839~840쪽.

이창덕은 1919년 3·1운동 때 桓仁縣 紅石磊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독

립단에 가입하였다. 그 후 서로군정서에 입대한 뒤 1920년 8월 정무총장 이탁의 명령에 따라 평안북도에 들어와 9월 1일 친일파로 알려진 후창군수 계응규를 총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사형이 확정되어 1921년 4월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968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기타사항: 서북학회 회원

- 출전: 『서북학회월보』 제5호, 1908년 10월 1일.

“제22회 신입회원 입회금 수납보고

유지무 유내필 이인준 원호목 이춘수 전의순 최인섭 허을 정봉소 이순필 이구진 최준정 전복영 (중략) 정래화 계응규 이응원 김홍정 (중략) 윤승련 정재용 한관국  
各一圓式 合計一百二十二圓”

평 단

계응규는 1907년 6월부터 1910년 2월까지 평안북도 의주지방위원과 선천군 지방위원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지방위원은 통감부에 의해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친일세력 육성의 수단으로 조직된 군 단위의 지방자문기구였다. 계응규는 1909년 12월 당시 선천군 지방위원으로서 초대통감 이토[伊藤博文]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죄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성부에 모여 ‘13도대표 도일사죄단’에 참여하려 했으나, 일진회 회원들의 주도와 인민 대표성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참여하지 않았다. 1909년 12월 27일 지방위원 대표 6명과 함께 흥인문 밖 永道寺에서 이토의 죽음을 애도하는 각도대표 지방위원추도회를 주도하여 거행하였다.

계응규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 평안북도 태천군수로 임명되었으며, 재임 중인 1912년 8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11월 평안북도 후창군수로 있으면서 일왕 다이쇼[大正]의 즉위식 관련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평안북도 후창군수로 재직 중이던 1920년 당시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로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친일파 군수로 지목되어 그해 9월 1일 이창덕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조선총독의 시정을 몸소 실천하고 군행정에 충실한 순

직자'로 평가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6등 서보장을 수여하였다.

계응규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응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